

2021년 5월호(제 197호)

소중한사람들

5월에는

속으로만 흐르던 것을
모이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렇게 푸르름 가득 담은 호수가 되리

붉은 장미
노란 황매화...
아니 아니
진흙 같은 세상에서
등불처럼 피어나는 연꽃이 되리

바람 부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워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나무가 되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텅 빈 가슴에
분노도 없이
내색도 없이
카네이션 한 송이 달고
천하를 다 가진 듯
마냥 행복한 어머니!
그 가난한 어머니가 되리

시. 유정옥

발행인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10-7195-3045 · www.pp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저는 청소년 시절 방황을 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약간은 컨트롤하기 힘든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가출도 했었지요. (하지만 소심해서 멀리 가있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방황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삶에 대한 불만을 한껏 털어 놓으며 제 자신을 향한 연민 속에 밀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황한 이유는 가야할 방향을 몰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한 이 ** 환우는 첫 만남 때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첫 예배 시간 자신을 소개하는데, 기독교로 말하면 한국 기독교 실업인회_CBMC와 같은 불교실업인회 회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 환우들이 다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약간 무서웠습니다. 이번에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제3기 전도 폭발 훈련자를 신청 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소중한 사람들 전도자들은 마치 사냥개의 눈빛들이 되어 당장이라도 전도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구야. 너무 다들 잡아 드시려고 달려 들지는 마세요.”

“하하하... 호호호...”

이 ** 환우는 입소하신 지 3주 만에 퇴소하시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응급실을 가시며 보호자가 없이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무료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채우지 않은 것은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은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환우님과 같이 간병이 필요하신 분은 보호자 (간병인 포함)가 항상 함께 하셔야 하는데 이**환우는 간병해 주실 분이 없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환우는 간암 말기 환자로서 먹으면 다 토해 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중간에 토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야할지언정 침대에 누워 화상으로 예배드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내려와 꼭 합장하시는 손 모양으로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토요일에 응급실에 가시는 것을 보고 속히 세례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에서는 6주 과정의 성경 공부를 하고 확실한 믿음 고백을 들은 후에 세례를 주는 원칙을 세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환우처럼 급히 다른 곳으로 가야할 분에게는 병상 세례라도 믿음이 확실하다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이 지나오면서 마음이 조금해 졌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주일 사역도 감당해야 했고 마침 5월 9일이라 부모님과 식사도 나눌 계획도 미리 잡아 둔 터여서 센터에 돌아오면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어버이날 감사 식사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이** 환우의 안위

만이 걱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지나고 이**환우를 월요일에 뵈었는데 무척 좋아 보이셨습니다.

병실에 나란히 앉아 믿음에 관하여 하나 하나 점점해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만 허락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러시길 너무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24시간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것을요..."

이**환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만 빨리 이곳에 왔어도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요."

암환우에게 방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환우에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환우는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기에 인생의 목표, 치유의 목적지가 분명해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동안 요양병원 등에서 왜 좋은 치료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며 이**환우님은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지요.

사실 소중한사람들 세례식은 어떤 교회의 세례식보다도 더 특별합니다. 보통 암에 걸린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나이가 50, 60이 되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라 우리 모두에게 그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으로 환우들은 꽃다발과 선물을 주며 진정한 축하를 해드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환우님의 경우에는 주말을 지나오며 준비되다 보니 저는 세례 받는 분을 위한 축하 선물을 환우들이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 환우들은 언제 준비했는지 꽃다발과 선물을 하나 가득 안겨드리며 이**환우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힘박웃음을 지으며 이제 막 결혼하는 새 신부처럼 즐거워하는 이**환우님을 강단에서 느낀 점을 말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꽃을 하나 가득 안고 이**환우님은 웃는 얼굴에서 급히 목이 메이는 말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성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시며 이** 성도님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병이 나아서 여러분처럼 전도하고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 '도'. 그 완전하고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말이 이렇게 간절하고 존귀한 이름이었던가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0년 전 부터 이곳을 준비하시고 많은 이들이 후원하며 아름답게 지은 소중한사람들에서 "성도"의 가치를 드높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불교 신우회 회장이라는 직책보다도, 한 회사의 높은 지위의 임원이라는 말보다도 성도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신 이** 성도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처럼 우리 믿는 자도 그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글 / 이성일 목사



▲ 강변소풍



▲ 김치부침개파티



▲ 남자의행기



▲ 빛꽃과함께



▲ 빛꽃나들이



▲ 빛꽃놀이



▲ 빛꽃놀이



▲ 빛꽃향연



▲ 봄나물캐요



▲ 산을 정복하다



▲ 뽕채소심기



▲ 우리아빠는 아니지만



▲ 자연과함께



▲ 전도복발수료식



▲ 치유의숲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우리들의 가슴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 어머니이다
살아 있을 때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내 삶에 온전히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된 이름이다.
내가 어머니를 떠올리면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장 선명하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니셨다. 그 때는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새벽 벽에 장화를 신고 하얀 눈을 밟으면 나의 발자국이 눈길에 첫 발자국으로 인쳐졌다. 장화속으로 들어오던 차가운 눈의 감촉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선 교회당 난로의 불은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서서히 사워어 갔다.
그렇게 새벽마다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어머니는 또 무슨 기도 할 것이 남았는가? 밤에 잠을 자다가 우연히 깨어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차가운 윗목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또 기도하고 계셨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되었다. 나는 쉬지 않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다.

어머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셨다. 그 때는 왜 그렇게 지지도 많았는지... 전쟁 후라 어려운 이웃들이 많았다. 거지들이 술갈로 강릉을 두드리며 찬밥덩이 조금만 보태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 너도 나도 밥 먹기가 어려운 때라서 먹고 남아 있는 밥이 없을 때였다.

어머니는 마루에 밥상을 차리고 방금 한 우리들이 먹어야 하는 밥을 거지에게 내어주곤 했다.
나는 그 모습이 속상해서 거지들을 미워하기도 했다.
그런데 거지들을 정성껏 대접하던 어머니의 그 영상은 지금 그대로 판박이가 되어 나의 일상이 되었다. 나는 1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노숙인들이 밥을 정성껏 준비하여 섬기고 있다.

어머니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셨다.
내가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일이 있다. 피가 흐르니 나는 금방 죽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약을 바르고 붓대를 감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정육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말씀하셨다. 나는 상처 때문에 아픈 것보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화가 단단히 나서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넘어지지 않게 해야지 넘어져서 피가 나게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야?"

"응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란다.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란단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복은 넘어지지 않게 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거나 실패 없이 성공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란다.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성공이 아니고 재앙이란단다.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영동한 그 말씀들을 지금 내가 내 아들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초순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큰아들이 전화를 하면서 울었다
"어머니 힐링센터가 수해가 났어요. 눈깜짝 할 사이에 산에서 엄청난 토사가 쏟아졌어요."
그 전화를 끝으로 통화가 끊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거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나혼자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어머니의 찡그린 얼굴을 본 일이 없다. 항상 기뻐하는 어머니는 80세가 넘어도 언제나 밝은 소녀 같았다. 우리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강한 메시지가 된다.
나는 서울역 노숙자 섬김 사역을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우리는 표정으로 말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머니는 가슴은 언제나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치 않으시고 값을 치루는 것을 기뻐하셨다.

어머니는 천국의 부름을 받기 전 날
나에게 당신의 입에 귀를 대라고 손짓하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주 적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 한 시간 후면 아버지 집에 간다"
어린아이가 "나 내일 소중한단다!"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나에게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을 한껏 자랑하고 떠나셨다.
어머니는 시력이 다하는 날까지 수없이 읽으셨던 성경책 한권만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나셨다.

나도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나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 하나만을 이 땅에 남기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아무 여한이 없다."고 기뻐하면서

어느 날 홀연히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소원한다.
나의 아들들이 나의 지인들이 내가 어머니를 기억하듯 나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에 내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글/ 유정옥

2021년 4월 청평 소중환사람들교회 헌금

●천사헌금●						
이현미(1,000,000)	민윤홍(1,000,000)	이은주(1,000,000)	민노엘(1,000,000)	이주영(1,000,000)	김승정(1,000,000)	홍부내(1,000,000)
조범호(1,000,000)	정영자(1,000,000)	이유승(1,000,000)	조아나(1,000,000)	민현정(1,000,000)	박용천(1,000,000)	황보순(100,000)
●십일조●						
강성림(50,000)	권분희(50,000)	권은미(300,000)	무명(58,500)	민안나(130,000)	박광수(110,000)	박근례(36,000)
박용범(200,000)	이상일(300,000)	이영광(200,000)	이은순(311,000)	이홍규(500,000)	이희숙(40,000)	전옥교(100,000)
정해실(100,000)	정훈기(박효정)(320,000)	최영자(100,000)	최영희(200,000)	황순찬(43,000)		
●부활절 감사헌금●						
권분희(50,000)	권외자(50,000)	권은미(100,000)	김미향(1,000,000)	김진임(100,000)	민안나(50,000)	박효정(50,000)
신현숙(100,000)	양옥경(200,000)	이용림(50,000)	이인순(100,000)	이희숙(50,000)	최정임(100,000)	
●감사헌금●						
강성림(90,000)	구재은(78,735)	권분희(200,000)	권외자(140,000)	권유승(230,000)	권은미(500,000)	김미향(250,000)
김상근(200,000)	김선아(50,000)	김순정(250,000)	김영애(10,000)	김종희(20,000)	김진임(900,000)	무명(366,000)
박광수(25,000)	박광수(100,000)	박선안(168,420)	박효정(40,000)	봉한석(70,000)	성나희(120,000)	소한구(100,000)
송기승(30,000)	신한구(50,000)	신현숙(300,000)	오윤재(60,000)	유정옥(200,000)	윤채원(200,000)	이달호(30,000)
이미라(250,000)	이미진(50,000)	이상일(350,000)	이영광(140,000)	이옥경(300,000)	이용림(200,000)	이인순(100,000)
이정하(10,000)	이희숙(100,000)	임귀례(300,000)	전옥교(30,000)	조범호(정영자)(1,000,000)	주재희(150,000)	최봉관(700,000)
최영자(70,000)	최영희(150,000)	최정임(200,000)	황순찬(50,000)	황지현(100,000)	홍부내(100,000)	강가상(10,000)
고운화(100,000)	공은영(30,000)	김광숙(50,000)	김남미(50,000)	김순경(300,000)	김영관(100,000)	김유미(30,000)
김현숙(1,000,000)	김혜림,김윤재(100,000)	무명(785,000)	민현정(3,000,000)	박관희(5,000)	박애경(30,000)	맹정윤(20,000)
소중환(100,000)	소한태(10,000)	손영옥(50,000)	심정은(10,000)	안영례(400,000)	안은미(20,000)	유선정(100,000)
유영재(340,000)	윤순남(100,000)	윤아림(5,000)	이금자(100,000)	이돈구(1,000,000)	이명송(50,000)	이상길(10,000)
이양복(10,000)	이원옥(1,000,000)	이진호(60,000)	이한나(500,000)	장재원(100,000)	장승아(10,000)	정동익(30,000)
조경덕(100,000)	조옥선(20,000)	최영희(10,000)	최은선(122,000)	한은숙(400,000)	한향식(200,000)	허재건(200,000)
현성원(30,000)	황미연(50,000)	황옥남(30,000)	황혜령(10,000)	계영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지원센터(100,000)
서울서교회(100,000)	오티로스피스(50,000)					
●CMS헌금●						
강은숙(20,000)	권태준(10,000)	김귀옥(30,000)	김영자(20,000)	김분기(50,000)	김성재(20,000)	김영신(3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도주은(200,000)	만현정(10,000)	박경미(50,000)	박원준(50,000)	백소연(20,000)
소희남(30,000)	윤인초(10,000)	윤화숙(30,000)	이경희(10,000)	이상림(100,000)	이혜경(50,000)	장승아(10,000)
정은은(5,000)	정윤호,김연희(500,000)	정은경(10,000)	조남남(20,000)	조영실(4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하정민(10,000)	한종일(20,000)	Alt Anna(100,000)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십일조	3,248,500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933,344
감사헌금	20,325,155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466,575
천사헌금	13,100,000	식자재구입비	7,412,417
CMS헌금	1,605,000	전기요금	3,485,760
부활절 헌금	2,000,000	가스요금	806,000
		화재보험료	1,200,000
		KT통신비	471,150
		CMS사용료	66,000
		비품구입비(소모품)	428,000
		안전점검비	418,500
		엘리베이터 관리비용	3,686,100
		공사비	20,559,000
		급여인건비	14,123,825
		사회보장보험료	1,657,610
		소식지 발송 전도비	192,440
금월 수입 합계	40,278,655	지출 총액	55,906,721
전월 이월금	766,725		
차입금	15,000,000		
총 수입 합계	56,045,380	금월 잔액	138,659

소중환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심터

소중환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환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4월 가입자 명단 (13명)

280. 이현미 281.민윤홍 282. 이은주 283. 민노엘 284. 이주영 285. 김승정 286. 홍부내 287.조범호 288. 정영자 289. 이유승 290. 조아나 291.민현정 292. 박용천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옥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영구	6. 김수영	7. 설준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봉
11. 박철홍	12. 정동영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은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차을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화	24. 박순화	25. 임광태	26. 한정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혜란	35. 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정용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영옥	44. 최명락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철자	48. 정한종	49. 정해강	50. 최숙자
51. 윤 완	52. 최광락	53. 최유은	54. 최여은	55. 박정애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사재신	60. 이하기
61. 이원영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해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신미	68. 김영관	69. 천유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영	77. 변현영	78. 배경하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경은	82. 이정은	83. 신성란	84. 정훈기	85. 정희창	86. 정여은	87. 박효정	88. 허명종	89. 김미원	90. 신형진
91. 변영봉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박철홍	96. 홍명주	97. 김현숙	98. 무 명	99. 유성진	100. 성낙희
101. 권홍봉	102. 황보순	103. 이화영	104. 황정아	105. 황현동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승연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아이린 김	113. 이향순	114. 이동주	115. 인사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윤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성희	123. 박유민	124. 이한나	125. 이윤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차연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해숙	136. 양수진	137. 심재록	138. 김현숙	139. 오봉자	140. 이태종
141. 김다혜 다	142. 진자아	143. 조혜숙	144. 이형훈	145. 박해정	146. 민안나	147. 이금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명희
151. 최명희	152. 김희연	153. 안정희	154. 김영숙	155. 문예은	156. 임수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은주	164. 이열리	165. 이예슬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동영	169. 김달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옥남	173. 김희성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돈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문자은	184. 문자은	185. 이다영1	186. 이돈구	187. 송희중	188. 이아름	189. 정윤호	190. 김순애
191. 인종복	192. 이명화	193. 유광현	194. 이돈구	195. 이용림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영숙	199. 윤대요	200. 최경련
201. 김호년	202. 박해원	203. 장승아	204. 황보순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백성운	210. 홍지윤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명	214. 황순찬	215. 박미향	216. 유민성	217. 우짜미(유사)	218. 이은주	219. 백성운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외선원자료	228. 김애송	229. 김수현	230. 김수현
231. 장민숙	232. 김숙희	233. 남원학	234. 남지영	235. 김정자	236. 김정자	237. 박선순	238. 노은순	239. 이성혜	240. 최지윤
241. 최해령	242. 임계숙	243. 이송재	244. 연규홍	245. 김선경	246. 김선영	247. 손태정	248. 이은주	249. 정해실	250. 정해실
251. 한종석	252. 한화숙	253. 김애원	254. 박정희	255. 한경숙	256. 이기열	257. 정은영	258. 이우경	259. 최영훈	260. 최영훈
261. 김미옥	262. 김동수	263. 조지영	264. 이선	265. 최영애	266. 장승아	267. 최승아	268. 이현미	269. 이주영	270. 최해진
271. 손현이	272. 송은희	273. 유용주	274. 변영록	275. 최영자	276. 김성곤	277. 김동완	278. 이가경	279. 신현규	280. 신현규
281. 이현미	282. 민윤홍	283. 이은주	284. 민노엘	285. 이주영	286. 김승정	287. 홍부내	288. 정영자	289. 이유승	290. 이유승
291. 조아나	292. 민현정	293. 박용천							

소중환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환사람들교회

소중환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소나무 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1년 04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 10,000 정현지 100,000 최영애 200,000 한종석 200,000

2021년 04월, 5명의 환우에게 5명의 환우에게 1,858,35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환사람들교회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han사람들 힐링센터는 환우들이 면역성이 약하여 코로나 차단을 위해 외부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는 계속 되었지만 외부의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중보 기도해야 하는 환우들 명단을 올려 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구재*님 (신장암) - 5/4일 신장.갑상선 CT에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도록.
2. 최봉*님 (췌장암) - 5월10일 CT를 찍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12차 항암 부작용없이 잘 견딜수 있도록.
3. 권유*님 (난소암) - 표적항암 부작용으로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치가 올라갈수 있도록.
4. 주재*님 (유방암에서 뼈로 전이) - 표적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화기 안되고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5/18일 피검사와 다른 검사들을 하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5. 성낙*님 (소장암) - 28일부터 28일까지의 치료과정이 잘 이루어져, 자가면역력과 체중, 근력증가 등이 향상되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도록.
6. 김상*님 (흑색종 비강암) - 항암약이 의료보험에 적용되어 부담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뇌에 더 이상 전이를 막아주시고, 뇌 방사선 치료시 위험하지 않도록, 5/16일 항암을 잘 받을수 있도록.
7. 윤재*님 (유방전이 재발암) - 계속되는 항암으로 지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 속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8. 권분*님 (대장암) - 5/15일 CT를 찍고 5/24일 검사결과가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도록.
9. 이미*님 (복막전이암) - 5/7일 찍는 CT상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특히 직장과 직장주변 복막암이 깨끗해져 항암 신약 사용 유지 및 치유될 수 있도록.
10. 김진*님 (간전이 재발암) - 간 제거수술이후 전이, 재발되는 일 없도록.
11. 최영*님 (유방전이암) - 마지막 항암을 잘 마쳤으나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과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5/18일 CT 찍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12. 이희*님 (유방암) - 4/30일 혈액검사후 5/7일 항암있고, 5/8일 CT찍습니다. 면역수치 좋아서 잘할 수 있도록, 신장에 무리없도록.
13. 권외*님 (담도암) - 항암으로 팔.다리 저림이 있는데 부작용과 후유증 그리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구토가 없도록.
14. 양옥*님 (난소암) - CT결과 비장에 새로운 암세포를 발견하여 새로운 항암약으로 변경했습니다. 3세투여 기간 동안과 5/9일 CT촬영, 5/18일 좋은 결과 나오도록.
15. 최영*님 (난소암) - 항암부작용으로 손발 저림과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5/18일 CT찍는데 좋은 결과 들을 수 있도록.
16. 이영*님 (방광암) - 5/7일 MRI찍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암때마다 부작용으로 간수치와 혈당 등 부작용 없어지고 전립선 수술경과가 좋아지도록, 5/20일 피검사결과가 잘 나올수 있도록.
17. 김미*님 (유방암 전이) - 울렁거림, 어지러움, 기운 없음과 체중감소에서 해방되도록.
18. 이병*님 (간암) - 5/13일 2차 항암시 항암후유증 없도록, 간암으로 폐와 척추에 전이 된 상태이며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19. 이안*님(폐암4기 뼈전이) - 표적치료제를 복용하여 내성이 생기지 않고 암세포만 다 소멸되고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20. 강성*님 (유방전이암) - 방사선치료로 소화기능이 좋지 않고 미미한 자극에도 피부가 따갑고 불편합니다. 잘 견디고 치유될 수 있도록.
21. 이달*님 (폐육종암) - 다음 회차부터 다른 약으로 항암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효과 있도록
22. 봉현*님 (간암,뼈암) - 눈(시력, 시신경회복), 뼈암, 간암이 온전한 치유를 받기를, 간수치가 높아져 있어서 치료 중에 있으며 속히 간수치가 낮아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2)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들이 독수리 날개 처듯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삶의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나무이야기 ▲ 서빙고온누리교회
 ▲ 수지선한목자교회 ▲ 수지선한목자교회 ▲ 양재온누리교회 ▲ 에클레시아
 ▲ 조이어스교회 ▲ 주사우리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17년을 맞이 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방역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300명 이상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4월에는

5일, 12일, 19일 나무 이야기, 6일 모래내교회, 8일과 28일 문화 사역팀, 10일 에클레시아, 13일 조이어스교회, 2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21일과 29일 선한 목자교회, 24일 주사우리 26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김태희, 권경희, 계용돈, 권민영, 김성주, 김희숙, 김소연, 권정에 박은순, 박성연, 손수정, 송연선, 신승규, 신순임, 석동신, 이정희, 이지은, 임경숙, 이문정, 오상중, 이상해, 예은자, 이은경, 이선화, 최상혜, 장현중, 최금련, 정은혜, 전민희, 전은혜, 한현희님...봉사해 주셨습니다.

강덕희, 고금순, 김용수, 김연희, 김도영, 노정규, 박경근, 방유미, 변영미, 이한숙, 임팽자, 장종숙, 허청만, 한송희...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매일 예배와 합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난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엘, 조진영, 정기중, 이은철, 이성일 목사님과 김재정, 이범주 교수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우유나눔



▲ 이미용봉사



▲ 차익나눔



▲ 특송

4월 노숙인들에게 나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힘들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지친 삶의 어려움속에서도 노숙인들을 위해 한가지, 두가지 정성스럽게 만들고 다듬고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물품을 매일같이 나누어 주는 나눔속에 소중한사람들 모든이들이 하나될 수 있어서 행복한 3월이었습니다.

*4월17일 20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24일 30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이발 미용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숙인들을 위하여 포도, 망고, 토마토, 오렌지... 고급 과일을 헌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암환우인데 매주 화요일 요양병원에서 외출하여 싱싱한 과일을 구입하여 소중한사람들에 가지고 오십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노숙인들이 맛있게 과일을 잡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암에서 완치되어 급식 봉사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성혜님이 암에서 완치되어 노숙인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남성 센터



▲ 무료방역-공기수비대 안성원님



▲ 생활인큐터



▲ 서울시장보궐선거



▲ 큐티사상

센터 생활인들은 잃어버린 혈육의 가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소중한사람들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4월1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입소인들이 투표에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참여 했습니다.

공기 수비대(대표 안성원)에서 센터를 무료로 대대적인 소독을 해 주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센터를 통해서 정훈기 님이 실습을 성실히 했습니다.

백용하 지도사님이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4월에는 김관호, 김현웅님이 입소하여 센터의 새식구가 되었습니다

방효진, 이준호님이 퇴소 하셨습니다.

5월초 현재 35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5월3일 센터 입소인 전원과 종사자 7명

3월 23일 자활센터 전원 결핵 협회에서 센터를 방문하여 결핵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건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센터 생활인들은 매일 오후 6시 QT를 하고 있습니다.

4월 QT 출석 시상자는 배일근, 서성원, 이희승, 정길진, 조길환, 원현식, 노대표, 최광석, 이우현님입니다.

상담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4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4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일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853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남성 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최영자,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성낙희, 양옥경, 구재은, 윤채원, 이달호, 최영희, 이인순, 강성림, 최봉관, 이영광, 권유송, 김미향, 권외자, 김진임, 김상근, 주재희 님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혜숙, 박영려, 이기열,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김현충, 최은희, 이영숙, 김영민,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인종복, 김미희, 박경미, 김우현,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이용림님이 재발되지 않도록

7. 신형진님이 8차까지 맞은 스펀라자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앤드류 구명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아이티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귀퉁 마을에 현대식으로 초등학교와 교회를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퉁마을에 지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아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악탈과 납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칼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멕시코



2010년 3월 멕시코 엔시나다에 인디오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학교 겸 고아원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디오 원주민들은 감뽀라는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단 거주를 하는데 15살때부터 아이를 낳아 한 가정에 아이가 6~10명이나 됩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은 매춘부나 마약딜러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멕시코 엔시나다 오벤에돔의 집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2009년 11월부터 중국 도문시 애심 복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은 탈북자들의 아이들이거나 연변에 버려진 조선족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아후원 사역은 한철범 원장님, 선교는 최민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이 묶여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필요한 물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북한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통제가 풀리면 바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퍼져 가야 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86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유정옥 사모의 신앙생활을 담은 에세이 고아가 된 어느 남매를 맡아 키운 이야기 생면부지의 암환자를 봉양한 이야기 먼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등 삶의 굽이마다 펼쳐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정가 10,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세 번째 이야기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http://café.naver.com/orangecekpu>에서 육아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YES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9.7 /10.0

두 아이를 키우는 박선인 사모가 실제로 아이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동으로 풀어가는 영롱한 이슬 같은 예쁜 이야기 글 모음이다.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사모의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는 서울역 노숙인들 곁에서 12년간 함께 해온 유정옥 사모가 그곳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워할 때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정가 12,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네 번째 이야기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 사모의 우리아이를 위한 예쁜 글모음, 그 두번째 내 아이를 위한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 우리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양육해 가는 세밀한 과정을 사랑의 마음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 이 책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자존감을 상실한 어른들에게도 사랑과 힘이 깃들게 되는 선한 지침서와도 같은 사랑과 지혜가 담긴 글 모음이다.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말씀 통독, 정독 및 성경 공부용 신개념 성경

<형광펜 성경1, 2, 신약>

퍼낸인<이성웅/이한나> 출판사<하늘참고>

(형광펜성경1)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형광펜성경2)가 역대상부터 말라기까지 출간되었습니다. 또한 (형광펜성경 신약)에 이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묶어놓은 (형광펜성경 신약2)가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개역한글판"으로 출간됩니다.

형광펜 성경의 표시 방법은

각 장 별로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서 다르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2~3단어의 짧은 구절은 글자 색에 변화를, 4~8단어의 구절에는 같은 색의 밑줄을, 9단어 이상의 긴 구절에도 글자 색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짧은 구절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시를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구절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형광펜 성경 신약]에서는 구약이나 해당 복음서 안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 복음서가 쓰인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찾아 그 의미를 본문 옆에 기록하였으며, 무엇보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찾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그림 혹은 지도를 찾아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형광펜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형광펜 성경으로 이야기를 듣듯이 성경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형광펜성경 하늘참고를 검색하시면 동영상 강의로 쉽게 성경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펜성경2 구매방법 *pdf로 구매하셔야합니다*

이번 (형광펜성경 신약2)는 pdf로 출간되었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료이므로 구매안내를 해드립니다.

*카카오�뱅크 3333-13-9497222 (이성웅) *가격 : 1만원을 입금해주시고 성명, 송금날짜, 송금시간을 2445matt@gmail.com으로 이메일 발송해주시면 확인후 보내신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티타임&바이블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

티타임&바이블은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열린 성경 모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작은 성경 카페 같은 모임이에요. 특히,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는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었던 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길 때 바로바로 질문하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티타임&바이블에서 혼자 또는 함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담당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티타임&바이블에 함께 모인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오셔서 특강을 들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다 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티타임&바이블에서는 티와 커피가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픈한 공간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일정 *

창세기 (화 오후7:30/ 강남구청역 갯피플웨딩)

베드로 전후서 (금 오후7:0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다니엘 (주일 오전 9:3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 일반서점, 인터넷서점, 직접주문(02-365-9106)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소중한사람들의 책 수익금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 암환우 힐링 센터 의료 선교비로 쓰여 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추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